

# 소수민족 언어·문화·인구는 캐나다 성장 동력

2부- 해외 다문화 현장을 가다

16 소수민족 언어 적극 보호

### “이민자는 저출산 문제 직면한 캐나다의 귀한 자산” 자긍심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특성 존중

밴쿠버=글·사진 이종행기자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동화’가 아닌 ‘공존공생’이다. 개별 민족과 인종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캐나다의 인구는 지난 6월 말 현재 3410만 명. 이중 구성원이 10만명 이상인 민족은 34개에 이른다. 캐나다 정부는 공용어인 영어와 불어 외에도 소수 민족의 언어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친다.

소수인종이 자신들끼리 단결함으로써 다른 캐나다 사회에 배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그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지난달 25일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인 캐나다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캐나다 밴쿠버(Vancouver) 코퀴틀람시(Coquitlam City) 코퀴틀람 중학교 1학년 교실. 10세 미만의 어린이 10명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었다. 취재진이 “한국에서 온 신문기자입니다. 잠깐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취재진은 취재 내용에 대해 영어로 간단히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때 한 남학생이 취재진의 손을 잡고 교실 밖으로 이끌었다. 이 학생은 자신을 알렉스 보이어(8) 라고 소개한 뒤 “교실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 어머니와 캐나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알렉스군은 지난 9월 1일부터 이 학교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느라 바쁘다. 어머니의 모국어인 한국어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이곳의 수업은 언어와 문화, 역사 수업을 모두 한국어로만 진행한다. 교사들도 모두 한국인이다.

이 프로그램은 1960년대 캐나다에서 영어 사용자들에게 불어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기 위해 도입한 ‘이중언어 사용’ 프로그램이다. 영어·수학·과학 등 교과목을 한국어를 사용해 지도한다. 다만,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과 교육에 초점을 두는 교수 방법이다.

학생 수는 모두 130명. 초급·중급·고급반으로 나뉜 학생들은 초·중·고교를 다니면서 주말마다 이곳에 나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교육청도 관할지역 내 초·중학교를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등 소수 언어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펴고 있다.

크리스티 베노스테일(10)양은 “한국어를 배운 지 6개월이 됐는데, 2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긴다”며 “집에서는 엄마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데, 서툴지만 엄마가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불어·

중국어·유대어·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수학·과학·사회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다언어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 수업은 영어를 기본 언어로 하고 있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영어와 해당 외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소수인종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끼리 단결함으로써 캐나다 사회에 배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는 캐나다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소수인종과 이민자 집단이 영어 또는 불어권 커뮤니티 내에서 주변인으로서만 생활할 경우 캐나다 사회의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도 한 몫을 했다.

코퀴틀람 한글학교 명정수 교장은 “소수민족과 이주민 가정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캐나다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성장 동력”이라며 “‘캐나다적’이라 하면 곧 다문화성, 다양성을 이르는 정도가 될 만큼 이들의 언어나 문화를 지켜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 교장은 “한국의 경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이민자들이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지키려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상원의원 연아마틴(Yonah Kim Martin·여·46·한국명 김연아)씨는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은 소수민족이 이 나라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목표인 만큼 궁극적으로 국가의 통합에도 도움을 준다”며 “‘캐나다가 피하고 있는 ‘다양성의 관리’는 세계적으로도 이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선진적 정책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 공공도서관 인근 거리에서 다민족·다인종들이 모여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코퀴틀람시(Coquitlam City) 코퀴틀람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캐나다의 다문화 가정 2세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 각각의 문화집단이 어울려 완성된 ‘문화 모자이크’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국가의 성립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민이 주인이던 땅에 프랑스계와 영국계 이주민들이 들어와 지난 수백 년간 공존했다. 이후 세계 각지의 소수민족이 이주하면서 현재의 캐나다가 이루어졌다.

미국이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한 반면, 캐나다는 이들 국가와 큰 갈등 없이 독립국이 됐다.

미국 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유럽 나라들과 자국의 ‘색깔’, 혹은 국가 정체성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을 자국의 문화에 동화시켰다. 반면, 원주민-영어계-프랑스어계 등이 공존한 캐나다는 이민자에게 ‘이것이 캐나다식’이라며 동화시킬 뚜렷한 ‘색깔’이 없었다.

따라서 신규 이민자들은 모국에서의 문화를 캐나다에서도 그대로 지키며 살

10만명 넘는 소수민족만 34개 다양한 ‘모국문화’ 그대로 수용

았다. 각각의 문화집단이 어울려 이뤄진 통합체로서의 캐나다는 일종의 ‘문화 모자이크’였던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여러 다른 성격의 집단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캐나다의 특징이자 장점이며, 이같은 ‘다양성’이 국가의 귀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이에 1971년 연방총리 피에르 트뤼도가 문화의 다양성에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부여하고, 이를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다. 이후 그 특징이 더 분명해졌다. 백인우월주의에 집착하던 호주도 1960년대 말 유색 인종에게 이민의 문호

를 개방했다. 이런 의미에서 캐나다가 다문화주의 원조(元祖)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문화주의 선언 이후 30여년간 캐나다인들은 이를 자랑스러워 여겼고,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캐나다 사람들의 다문화의식이 최근 소극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 각 정당도 다문화주의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캐나다의 변화가 9·11사태 이후 이슬람권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계심, 폭동과 폭탄 테러 등 잇따라 불거진 소수민족과의 갈등 등이 캐나다 내에서의 문화충돌 사례들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 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관부

**난방비 절감, 등유대비 70% 이상 놀라운 절약률!!**

LG 히센시스템이 설치 및 애프터 서비스 유지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장점**

- 절전형 고효율 인버터 콤프레서
- 친환경 냉매
- 하이드로 키트채택

바닥 난방, 급탕이 필요한 병원, 기숙사, 리조트 등 다양한 건물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설치장소**

- 공장시설
- 업무시설
- 교육시설
- 숙박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관부 **진영설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28-10번지  
TEL. 062-953-2371 · 061-727-2371 · 019-624-2371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수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 作名·鑑定 專門 哲學院 010-7671-5623  
위 처: 동구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